

제 228 호

예수 수난(성지)주일

1977. 4. 3

숲 정 이

| | |
|-----|-------|
| 발행인 | 김 종 택 |
| 인쇄인 | 범 석 규 |
| 주 간 | 조 성 호 |
| 편집 | 한 상 갑 |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강론 **십자가를 바라보라** -주님의 육적인 고통-

이 재 후 신 부

주님은 세상에 내려 오시는 처음부터가 고생이었습니다. 베를레헴 말 구유에 탄생하신 것이나, 에집트로 피난 하신것, 나자렛에서 가난한 노동생활을 하신것, 3년간 동분서주하시며 주무실 겨를도, 음식 자실 여가도 없이 활동하신 눈부신 수고가 다 우리를 위한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갈라리아 산상을 향해 나가시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머리는 가시관에 상해서 거룩한 얼굴은 붉은 피로 물들었고, 그 어깨는 무거운 십자가에 상해서 벗겨졌고, 그 등에는 빌라도 채찍에 맞아 멍들어 있고, 몸뚱이며 무릎발 할 것 없이 그 야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런 위로도 없이 모든 인간에게 버림을 당하고 하느님 아버지에게마저 버림 당하는 슬픔을 맛보셨습니다. 관리들은 예수를 버렸고, 헤로데 왕은 예수를 미친사람 취급했고,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알면서도 사형언도 했습니다. 또 민중들까지도 예수를 버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하며 만세 환영 했지 마는 돌변하여 피에 굶주린 사자 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우성 쳤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떡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자로는 어떡 했으며, 순교를 작아했던 베드로는 어떡했습니까? 모두 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통하게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만큼 큰 고통을 당하신 이를 아무 데서도 볼 수 없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실때 대 자연계가 크게 동요했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이 빛을 잃어 천지가 캄캄해지고, 땅은 진동하고, 예수를 묻은 돌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며, 성전회장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느낌없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힌 형상이 밝히 보이거늘, 내 어찌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을 수 있으며, 내 어찌 내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야니 지겠습니까? 하느님의 아들도 눈물없이, 피없이 못가는 길, 우리만이 편안히 누워 하느님 나라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안일무사주의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우리도 내 몫의 십자가를 사양치 말고 피로우나 즐거우나 끝까지 지고 주님따라 가기로 다짐합시다. 십자가를 작으려 하지 말고 십자가를 벗으려 하지 말고, 기쁘게 지고 갑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향하는 길입니다. (남원천주교회주임신부)



필립핀 주교단, 인권침해 비난

필립핀 주교단은 이례적인 공동사목교서를 발표, 마르코스 독재정권에 의한 인권침해를 비판했다. 최근 필립핀 전 교회의 강론대에서 낭독된 이 교서는 정당한 범절 차를 밟지 않은 정부의 외국인 선교사 추방조치와 사제 신자들의 체포 및 교회 단체활동의 방해공작을 비난하고 정부의 소수민족책이 소수민족의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고발했으며, "강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항의했다.

주교단은 이번 교서로 교회인사 확대와 체포를 비난하고 "우리가 최소한 요구하는 바는 사제, 수도자, 신자를 막론하고 복음의 역군을 체포, 추방하는 사건에 대해서 항상 정당한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외국인 선교사들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에 봉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반(反)정부 활동의 혐의를 받느냐, 아니면 그런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선교사로서의 임무를 전면 포기하느냐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주교단은 신자단체 활동뿐만 아니라 이에 중사하는 사제, 수도자, 신자들이 정부의 오해를 받아 체포, 추방당하고 있음을 지적, 항의하고 있다.

최근 필립핀 C. 바르바로 국방장관은 마닐라 주재의 국기자단과의 회견석상에서 마르코스 정권이 대항해야 할 "4가지 전선(戰線)"중 하나는 가톨릭교회이며, 다른 3가지는 남부의 회교도(回教徒)계열라, 미군기지 분쟁, 국내경제 악화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다바오 교구에서 활동중인 7명의 사제는 테도를 선동하고, 자기 분당에서 세미나와 회의를 위장한 파괴활동을 했고 폭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군사위원회에 기소되었다. F. 클라베르 주교는 사목교서를 발표, 고문에 가담한 신자, 정부공무원에게 성사를 베풀지 말고 성세, 혼인, 견진 예식의 증인이 되는 것을 금지시키라고 명했다.

(경향잡지 77년 4월호에서 발췌)

숲 정 이 신 채



시원스럽게...



명 동 성 당 기 도 회

정 승 현 신 부

한국 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가 주관하는 3월의 기도회는 28일 오후 6시에 명동성당에서 있었다. 이번 기도회는 한국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에서 주최하였으며 수녀님들이 모든 행사를 맡아 진행하였다.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판공성사에 여념이 없으신 신부님들이 본당의 일정을 연기하시고 기도회에 올라오신 것이다. 물론 기관원들의 감시 내지는 회유책을 뚫고 어려운 결음을 하신 것이다. 지난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벌여졌던 기도회 참석 방해공작을 생각하면 지금도 입맛이 쓰다. 이번에도 그에 못지않은 감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김수환 추기경님과 정의 평화 위원회 총재이신 윤공회 대주교님께서 주례하시고 30여명의 사제들이 공동 집전한 미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장엄하였다. 300명이 넘는 수녀님들과 특히 수녀 연합회 합창단의 티없이 맑은 성가 속에 거행되었기 때문에 더욱 장엄했으리라. 명동성당을 꽉 채운 신자들도 경건한 분위기에 젖어 뜨거운 기도를 바쳤다.

미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수녀 연합회 회장 조규옥 수녀님은 기도회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본미사는 정의 평화 위원회가 주관한 다른 기도회와 마찬가지로 3·1 명동 기도회 사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옥고를 치르는 분들과 정의를 위해 고통받는 분들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위정자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비는 뜻으로 거행되는 것임을 밝히고 뜨거운 기도를 요청하였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독서와 복음을 소개하면, 제1독서-아모스 5, 7-17, 제2독서-테살로니카 후서 2, 13-3, 5, 복음-요한 17, 1~19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최후로 바치신 기도이며 대사제의 기도(The High-Priestly Prayer)이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강론을 통해서 대사제로서 최후에 성부께 바치신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설명하시고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헤아리셨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썼으셨고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내주시는 성체성사를 세우신 다음 성부께 기도를 바치셨다. 지난 3년동안 예수님은 전심전력으로 하느님 나라를 전하셨다. 그 나라는 진리와 정의의 나라요, 사랑과 평화의 나라였다. 하느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기도 했고, 하느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기도 했고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회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기적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

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예수는 좌절과 허탈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민중의 지도자들인 바리사이와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민중이, 제자들이, 예수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예수의 본뜻을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유다스가 아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는 생명을 바치는 수 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깨달으셨다.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임을 확신하신 것이다. 때가 이르렀다. 권고나 훈계, 경계나 경고가 소용없는 그들이었다. 기적으로도 불가능하였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주셔서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 사신대로 죽으셨고, 죽으신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이셨다. 지금 우리의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은가? 소위 3·1 명동기도회 사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도 민주주의를 해보자." 이다. 그런데 그 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추기경님은 착잡한 심정을 이렇게 슬회하시고 오늘의 청신적 공백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를 물으셨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 나라와 위정자를 위하여, 구속되신 사제·목사·학생·기타 인사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난한 자·병든 자·억압 받는 자와 근로자들을 위하여 수녀님들이 신자들의 기도를 바쳤다.

미사 후에 한국 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 위원장 문창준씨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이 확정된 3·1사건의 판결에 대해 교회의 공식태도를 밝혔다. 성명서는 또한 가톨릭 시인인 김지하에 대해서와 금년 3월1일에 있었던 기도회에 성직자들이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고 연행 구금했던 사건이 종교 자유를 극도로 억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에 하경철 변호사(정평위 부위원장)의 3·1사건에 대한 재판의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변호를 맡았던 27명의 변호인단에 뜨거운 감사의 박수가 있었다.

미사를 마치고, 참석한 분들은 모두 촛불을 들고 성모병원 앞 성모 동굴까지 행렬하였다. 성모상 앞에서 목주의 기도를 바치며 위정자들을 포함하여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성모님의 축복을 빌었다. 카인과 아벨의 어머니, 예와의 후손인 성모님께 모든 이를 축복해 주시라고.

<다음 명동 기도회는 가톨릭 시보를 통해서 발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

각종 페인트·지물
비닐 장판·표구재료·화선지
K. S 사승표 페인트 대리점
대 동 지 업 사
입 정 원(도민교)
□전주시 풍남동 1가 17(동문사거리)
☎ ⑤ 9 8 6 · ② 7 6 5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으로!
미성당 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화 ③3301 (자택 ②8548)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 광 사
유 영 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우체국 후문 앞
전화 ② 6 3 4 6

□진부칼단 ④□

행복하여라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김 영 구 신부

“행복하여라.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만족하리니.”(마태오 5, 6)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을 소극적 성품이라고 한다면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적극적인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도 옳은 생활, 사람에게나 사회에 정의가 행하여지도록 생활하는 것이 참다운 옳음(義)입니다. 그리고, 주리고 목마르다 함은 육신의 가장 큰 욕망·욕구·갈망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심령의 가장 강력한 욕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욕망이 있습니다. 지식, 물질, 우정, 사랑, 권세, 영예의 욕망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마을 속에는 의(義)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심지어 악하기로 유명한 네로도 사형 허락에 대한 첫번째 싸인을 할때 「차라리 글을 안배웠더라면」하고 탄식했으며, 독재자 히틀러도 때때로 「정치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한가히 그림이나 그리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악하고,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은 사람들도 의에 대한 욕망은 있었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의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합니까? 우리 가정과 이 사회가 보다 평화스럽고 깨끗하게, 이 나라가 보다 올바르게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면, 이같은 소원이 늘 있으면 우리는 복받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새생명이 싹트고 움직이며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새생명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째, 바른 판단과 바른 욕망입니다. 「팔족 한 그릇보다도 장자(長者)의 명분이 귀한 줄 아는」(창세기 25장) 바른 욕망, 돈과 명예나 권세보다도 「의에 목말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둘째, 바른 선택입니다. 모세와 같이 애급의 향락보다도 양심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바른 선택이 새생명의 증거입니다. 모세는 의(義) 아닌 물질, 의 아닌 지식, 의 아닌 명예, 의 아닌 사랑을 쓸 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읍니다.

세째로 의에 기갈한 이는 사실 다른 욕망이 그렇게 크게 시험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외치신 것처럼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시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말씀대로 그 속으로부터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입니다.”(요한7, 38)의를 간절히 사모하던 사도 바오로도 주께 나와 의를 얻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심이 (192) 김병호



□이전 안내□

성원약국

성원 표(스테파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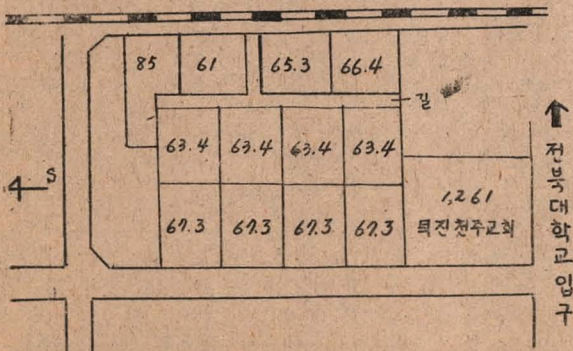
□태평동 전매청 좌측
200m지점
전화 ③ 5780

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맹인학교(충주시 지곡동 忠州 聖心 盲人 學校)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과정을 공부하기 때문에 만 17세 이하의 어린이가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입학 때 주민등록 등본 1통, 철따라 입는 옷 2벌 이상을 가져 오세요. 회비는 월 800원 입니다. 기숙사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노 요한 신부-

부지 분할 매매 공고

충주시 덕진동 1가 1261~6번지 내의 부지를 아래와 같이 분할 매매합니다.

- 문의처 : 덕진 천주교회 (전화3-2182)
- 기 한 : 1977년 4월 13일



OSTAR 미사·전자장판 대아 전기 진부대리점
여의주 전자 약타기 전주 대리점

광신전업사

박상기(안드레아)

충주시 중앙동 3가16(한일관 앞) 전화 2-4753
□각종 조명기구, 석유 연소기구, 가정용 전자기구□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지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 | | | |
|-----------|---------|--------|----|
| 노송동 ③4874 | 부안 736 | 남원 90 | 장수 |
| 다가동 ②4342 | 정읍 2157 | 임실 261 | 고창 |
| 전동 ②2143 | 김제 45 | 무주 | 진안 |
| 군산 3032 | 삼례 350 | 진안 | 진안 |

★ 각 지방 지점 구합 (계약금 없음)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
지
사
항

- 성주간(聖週間: 주의 수난 성지 주일 부터 성토요일까지) 전례에 참례하십시오.
 ① 성 목요일(7일, 주의 만찬)...가. 성유 축성 미사(11시, 중앙성당)
 사제들의 서품때 약속 갱신, 병자의 기쁨·성세 성유·크리스마 성유축성
 나. 주의 만찬 저녁미사...세족례, 성찬의 전례, 성체를 옮겨 모심
 ② 성 금요일(8일, 예수 수난, 금육과 단식일)...가. 말씀의 전례, 나. 십자가의 경배, 다. 영성체
 ③ 성 토요일(9일, 부활 성야)...가. 빛의 예식, 나. 말씀의 전례, 다. 성체예절, 라. 성찬의 전례
 - 사제 양성 후원을 위한 돼지 저금통은 부활 대축일 <10일>에 본당에 봉헌합니다
 - 치명자산에 환경 조성하고 싶은 단체나 교우는 교구청 관리국(3-3201)의 승인을 받고 하시기 바람
 - 성심·해성학교 교직원 연수회(9일, 가톨릭센터)
 - 중고등 연합회 신구 임원 교체식(오늘 오후 4시, 가톨릭센터 002호실)
 - 이삭회 모임 <매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교리, 음악 및 대화 통한 사랑과 신앙심 강화
 - 월요 기도회(4일<월>, 오후 8시, 가톨릭센터)...뜻있는 분의 많은 참여바람
- 문정현 신부님은 김해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청주교구에서 성금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문익환 목사(전주 교도소), 문동환 목사(북포), 윤반용 목사(대전), 서남동 교수(마산), 이문영 교수(순천), 함세용 신부(광주), 신현봉 신부(청주)

(중앙)

전화 3651 3874 주임 보좌 사도 신부 신부 서용복 김진석

- 사도회 월례회: 3일 미사후, 유치원
- 아치에스 행사: 3일 오후 2시, 강당
- 성3일 행사안내: <목> 11시 성유 축성 미사 (주교님 집전), 오후 7시반 미사/<금> 7시반 예절/<토>오후 8시 미사(주교님 집전) ※초지참 바람
- 부활절 미사: 10시, 주교님 집전
 ※사제 양성위한 저금통 봉헌 바람
- 판공일정: 진북동, 인후동, 금암동(5일)/서·중·노송동(6일)/경원동, 고사동(7일)/태평동(8일)/학생, 기타(9일)
 ※시간 9~12, 14~19시, 정한 날짜에 받으세요
- 교무금 납부 합니다
- 감사헌금: 문정님 (엘리사벳)-5천원
 □지난주 봉헌금: 105,998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 치주 신자들의 기도: 김성원, 김화자, 송영자, 황선주, 안경학
- 성3일 행사안내: 성목요일-저녁 8시 미사 (제시관 참조)/성금요일-십자가의길 (오후 3시), 수난전례 <오후 8시>/성토요일-부활 전야제 <오후 8시>, 모든 신자 초지참 바람(영세식 (대부,모와함께) ※칼교-5일 오후 8시..
- 부활 대축일 미사: 공식 미사 (오전 10시), 저녁 미사 (오후 7시반), ※오후 2시 결혼미사-김호택(배드로)
- 부활 합동 감사미사: 9일까지 빠짐없이 접수바람
- 사제 양성후원 돼지 저금통은 부활주일 미사때 봉헌
- 부활 계란 판매<북자회> 초·중·고생 위해
- 성우회 월례회: 부활 주일 공식 미사후
 □지난주 봉헌금: 34,485원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으현택 사도 회장 박장훈

- 사도회·학생회 월례회: 미사후
- 판공일정: 4일 (1~6반), 5일 (7~11반), 6일 (12~14반, 기타)※시간(9~12시, 12~18시, 19~23시)
- 성3일 행사: 매일 7시반 시작
 ※유아세례-<토>, 신청바람
 □지난주 봉헌금: 33,120원

(숲정이)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 사도회·누갈다 부녀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가정방문 일정: 금암동(5일), 진북 1동(7일), 태평동(8일)
- 애령회 발족! 모든신자 참여 바람
- 판공시작: 4일 부터, 지난주 숲정이가 소식 대로
- 정원수 기증 하신분들! 감사합니다
 정주복·이정환선생님,김영천 교수님
 □지난주 봉헌금: 63,47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용

- 사도회·애령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판공일정: 시간-오후 2시반~5시반, 저녁 7~8시반
 병자분들-4일 <월>, (반장님들은 본당에 연락 바람 /중노 2가-5~6일/기타 성사 못 보신분 -6일<수> ※성사포 못 받으신 분은 반장, 사무실에 연락 바람
- 성3일 행사 안내: 성목요일-오후 8시 미사, 성체조배/성금요일-십자가의길 <오후 3시>, 최마리오 신부님 특별강론<오후 7시반>, 오후 8시 예절/성토요일-부활 성야예절, 영세식<오후 8시> ※초지참
- 축 환영! 김곤술시아 수녀님, 전교사 방베로니카(희순)양
- 청년회 월례회: 오늘 저녁 미사후, 엽서 받으신 분은 모두!
 지난주 봉헌금: 42,000원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보좌 신부 김용환 사도 회장

- 은방울 썬 모임: 여중학생들 참석바람
- 예비자 교리: 매일 저녁 7시반
- 사도회 신축 위원회 임원모임: 공식 미사후, 사제관
- 신축헌금: 이완례, 박성녀, 정순례 (각 5천원), 정영주(1만원), 총5,688,500원중 헌 납부액1,117,000원
- 성주간 행사: <목~토> 매일 저녁 8시
 ※성세식-부활 전야에
- 신용 조합 임원회: 5일 <화>오후 8시
- 성가연습: 매일 저녁 7시반, 뜻 있는분!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철호 보좌 신부 함기윤 사도 회장 김윤석

- 판공일정: 완산<월>, 교동<화>, 풍남<수>, 전동<목>, 노송의 전부<금>
- 성3일행사: <목>영세식 및 제예절, <금> 오후 4시 십자가의길 (치명자산), 수난의 밤, <토> 7시반-어린이, 학생, 9시-전교구
 ※부활 축일날 꽃을 봉헌 합니다
- 사도회: 오늘 밤 미사후
- 성화회: 10시 미사후
- 교무금 봉헌 부활 안에!
 □지난주 봉헌금: 112,222원